



노인과 양로원

정기연 전 영암신복초등학교 교장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며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을 수용하는 곳이 양로원이다.

어린애는 부모가 양육하여 자라며 부모를 의지하며 자란다. 사람은 성장하여 어른이 되고 늙어 가는데 늙어서 거동이 불편하면 의지할 곳을 찾으며, 노인은 누군가의 도움과 의지할 곳이 필요하게 된다. 늙어서 의지할 곳을 마련한 것이 주택이며 늙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 공을 들이고 투자를 한 것이 자식들이다. 어린애가 결혼 가정되어 부양할 부모가 없을 때 어린애들의 부모 역할을 하며 양육을 해주는 곳이 보육원이다.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애는 보육원에서 같은 처지의 불행한 어린애들과 자라며 보육원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란다.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는 노부부 중 한쪽이 죽으면 독거 노인이 되는데 독거노인들이 의지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자녀의 집에 가면 처음 며칠간은 반겨주나 부

담감을 느껴 자녀의 집을 이 집 저 집 순방하게 되는데 결국은 혼자 사는 자기 집으로 오게 되고 혼자 살게 된다. 이러한 독거노인은 경제적 인 문제도 있지만, 심적으로는 고독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된다. 어려운 처지에서 노인이 선택하는 곳은 양로원인데 양로원에는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서로 위안하며 살고 있다. 따라서 사람이 노년에 자식들에게 노년을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은 잘못되었음을 후회하게 된다.

양로원에 들어가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들어가면 우대해주고 좋은 시설에서 살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노년에 필요한 것은 자식보다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양로원이란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을 수용하여 돌보아주는 사회복지 시설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노인 복지법에서 무의탁 노인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양로 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는 사·도립인 경우도 있으며, 입소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체·정신 또는

환경상의 이유 및 경제적인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자로 한다. 그 밖의 노인복지시설로는 노인 요양시설, 실비 양로시설, 실비 노인 요양시설, 유료 노인 양로시설, 노인 복지회관,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다.

현재 한국의 양로원 제도는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예로부터 '효'를 백행의 근본으로 삼아 온 국민 정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회 정책적으로 양로(養老)를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이며, '양로원'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27년에 설립된 경성 양로원(지금의 정문양로원)이다.

그러나 국권 피탈 후 독립투사의 유족을 돕고 있던 박인회(博仁會)가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초청하기도 청주시 운전동에 집단으로 수용·보호한 것이 양로원의 시초이다. 입소대상은 '생활보호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무 의탁한 노인으로서 생활 능력이 없는 자이며, 가능한 한 거택 구호로 보호하고, 부득이한 때에만 수용·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 내용은 생계 보호 의료보호 및 사망 때 장례비를 보조한다. 설립 주체는 대개 사회복지법인이다.

늙어서 거동이 불편할 때 의지하며 걸어갈 지팡이가 필요하듯이 노

년에 필요한 것은 지금 까지 양육하고 교육하고 재산까지 물려준 자식들이 부모에 효도하며 부모를 모시는 것인데, 핵가족의 현실은 늙은 부모를 자녀가 모시기를 꺼리고 늙은이 본인도 자식들과 생소한 가족 식구가 되어 살기가 부담스러워 혼자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유료양로원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종교계에서 세운 사회복지 양로원을 비롯해 수많은 양로원이 있으며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이 보육원 아닌 양로원에 스스로 입소하거나 자식들의 권유에 의해 입소하여 양로원 생활을 하게 된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직접 모시지는 못하더라도 양로원에 입소해 계신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보는 것이 자식의 도리일 것인데, 사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양로원 풍경이다.

바리데기가 효자 노릇한다고 부유하게 사는 자녀보다도 어렵게 사는 자녀가 양로원 방문이 많다는 것이 양로원 실무자들의 이야기다. 우리의 과거는 않지만, 미래는 잘 모른다. 그러나 나에게도 노년이 오고 있으며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지금 양로원에서 외롭고 고생하는 부모의 처지를 내가 곧 답답한다는 것을 자녀는 알고, 나의 부모님의 노후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효도를 해야 한다.

상대방의 거절의사, 말그대로 '거절' 의사입니다

김정은 여수경찰서 경무계 순경

지난 3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피해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여성이 이를 거절하자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왔고, 결국 피해여성과 피해여성의 어머니와 동생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사람들을 모두 충격에 빠지게 만든

이 사건은 다름 아닌 스토킹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해 신고를 하더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그쳤었다.

하지만 현재 스토킹 범죄는 이 범을 제정했을 때에 비해 횡수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



각한 범죄가 되었다.

이에 스토킹 행위에 대해 10월 21일부터는 흉기 등 이용한 스토킹 행위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고,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 및 가족·동거인에 대해 100m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더욱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다.

스토킹 관련 사례로는 '우연히 알게 된 A를 만나려 집 앞에 찾아가 A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계속 지켜보는 경우', '좋아하는 이성친구 B의 학교(직장)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B가 원치 않

는 꽃이나 선물을 놓아 두는 경우', '교제하던 이성친구 C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C에게 전화를 걸고, 페이스북 등 SNS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등이 있다.

만약 이러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1366(여성긴급전화), 스타일센터·해바라기센터(심리전문상담) 등 사안에 맞춘 전문기관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길 바란다.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다양한 수법으로 증가한 스토킹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본다. 또한 국민 모두가 스토킹이 중범죄임을 명심하고 상대방의 '거절'의사를 왜곡하지 않고, 말 그대로 '거절'이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아일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기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인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 서둘러야

지자체는 대체 특화산업 발굴, 정부 차원 획기적 지원 필요

조세현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석탄 산업은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다. 예고된 일이다.

20여년 전부터 예상된 석탄산업 소멸의 위기에 대처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뒤돌아 봐야할 시점이다.

우리나라 석탄 생산량은 1988년 2,429만톤, 2016년 172만톤, 2020년 101만톤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화순광업소도 1989년 70만톤을 생산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2016년에는 22만톤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광산근로자는 전국적으로 지난 1984년 8만5000여명에서 현재 2500여명으로 줄었다.

경제·환경·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의 대응에 따라 화석 연료인 석탄 산업은 언젠가 완전 소멸 될 것으로 보인다. 명맥을 잇고 있는 화순광업소 등 가용 석탄 광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인구 절벽으로 잠재 활력을 되찾기 어려운 마당에 폐광이 현실화되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실이 된 위기를 극복할 폐광 이후를 대비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 가용 광산인 화순광업소가 폐광되었을 때 미시적으로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근로자, 이들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거시적으로는 화순군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는 '경제적 재난사태'라 할 것이다.

'재난사태'에는 신속하고 획기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폐광 이후 대체산업 육성은 우리 지역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1995년에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금년 개정하여 시효를 2045년까지 연장하고 폐광기금 납부 기준이 순이익에서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등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체산업 발굴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폐광 대체산업 육성의 방향 설정이 얼마나 중요하지 해의 사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영국은 폐광 지역에 에네프 프로젝트 시행과 국립석탄박물관 건립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매년 103만명이상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유바리시(市) 사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지자체의 무능한 행정으로 폐광지역 관광화에 실패하였고, 그 결과 지자체가 파산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두 나라가 똑 같은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대하고 추진하였으나 영국은 폐광 대체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참여는 물론이고, 지역민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협력과 공감대 속에 사업을 추진했기에 성공 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현재 화순군은 자체적으로 '광산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화순군뿐 아니라 대한석탄공사(화순광업소), 정부의 광해기관이 함께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현재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산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은 전문적인 협의체 또는 기구라하기에 부족하고,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폐광에 따른 위기와 극복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크게 미흡하다.

화순군에서는 폐광에 앞서, 지역민과 함께 폐광 절차부터 대체산업 육성까지 전문적인 업무가 이루어 나갈 행정 담당자를 조속히 신설하여야 한다.

그 이후, 화순군과 화순광업소 그리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단기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폐광 전 오염원 방지대책 및 잔여 토지 활용방안 모색 등 주도면밀한 계획도 선행되어야 한다.

초기에는 막대한 연구 용역비와 협의체 구성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인근 지역 주민과 현 광산 종사자 및 가족들 더 나아가 화순군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입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엔프레스